결혼으로 잘 매듭진 후의 위험

(아가 5:2~16)

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5.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6.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7.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8.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결혼으로 잘 매듭진 후의 위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결혼으로 잘 매듭진 후의 위험’
연인의 관계가 결혼으로 잘 매듭지어졌는데 직후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생연분으로 확실히 믿었던 결혼을 후회하고 있다면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도 평생원수가 될 뿐입니다. 또 “30대 부부는 손을 잡고 자고, 40대가 되면 천장을 바라보고 자고, 50대가 되면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각방에서 자고, 70대가 되면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모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로 이름을 날린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페리(Antoine de Saint-Exupéry)가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 때는 크게 공감했던 말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험적으로 이 말이 의심스럽습니다. 함께 같

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부에게 갈등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은 제3에 대한 공동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관심에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습니다.

같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기에 대화가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해서 부부사이가 안 좋다면 뭔가가 잘 못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거꾸로 같은 관심거리를 가진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 혹은 상대방에 대한 몰이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의견과 생각과 소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부부의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애할 때에는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면서도 응원하고 격려해줍니다. 이렇게 사랑을 해서 연인관계가 매듭지어지고 결혼을 하면 상황이 좀 변합니다. 배우자를 응원하기보다는 타박하게 됩니다.

연애할 때에는 서로가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상대가 기뻤으면 좋겠고 상대의 마음이 충천했으면 좋겠고 만나면 편안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서로가 아니라, 가정의 경제나 자녀의 양육이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같은 곳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발생합니다. 각자가 가지는 기대와 판단과 생각이 다르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제는 서로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는 관계의 매듭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답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아내 술람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밤이슬을 맞으며 왔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술람미 여인도 그렇게 찾아온 솔로몬에 대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이라고 말하며 사양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도대체 서로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있기에 밤이슬에 옷이 젖을 정도가 되고,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을 잃게 될 것을 노심초사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신랑이 찾아온 것을 크게 반기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가옥은 사각형으로 지어졌습니다. 한쪽 벽에는 침상을 놓고 다른 벽 쪽에는 부엌이 있으며 가운데를 생활공간으로 사용합니다. 집안도 흙바닥이었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지내다가 침상에 오를 때에야 발을 씻었습니다. 당연히 잠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흙

바닥을 디뎌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생각해보면 이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집을 주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궁이 아니면 별궁에서라도 머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참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결국 문을 열어주지 않으므로 솔로몬이 오래 기다리다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7절에서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왕의 부인이 경호원 하나 없이 돌아다니다가 순찰병들에게 잡혀서 추행 당했다는 것일까요? 그렇게 요란하게 결혼식을 올렸는데 친위대라든지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인들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을 못 봤을 리는 없습니다. 들고 다니는 향로에 향을 피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옷은 겉옷을 벗기면 다른 것을 입지 않습니다.
이제 진실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건은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했거나 꿈에 대한 묘사입니다. 솔로몬 왕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가 매듭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교훈삼아 적용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듭지어지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듭지어졌으니 다른 문제들에 힘을 쏟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이나 자녀를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이 관심의 대상들에 대해 하나님은 내 생각에 공감하실 것이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루시리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과 맺어야 하는 바른 관계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연인이 부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관심의 이동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인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서로를 관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상대가 기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로써 관계가 매듭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위해서 많이 참고 많이 배려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 관계가 매듭지어지면 마음은 안심하여 더 이상 서로를 과제로 삼으려 하지 않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가정사의 다방면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에 납득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다투게 됩니다.
연애하는 심정이었다면 이런 문제로 다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더 우선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대방의 능력을 흠잡거나 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3의 대상을 관심거리로 우선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로 대표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도 같으며, 아가서에서 보여 주는 부부관계와도 같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매듭지어지더라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한 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는 돈 문제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의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과제로 삼는 것은 마음이 문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과제로 삼고 주님을 과제로 삼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과제로 삼지 못한 채 제3의 과제에 몰두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관계가 성숙되질 못하고 계속해서 설익은 상태로 이어져 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오점을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 서로에게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술람미 여인의 꿈으로 여겨봅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사랑을 고백하고 있으나 멀어진 것은 술람미 여인입니다. 밤이슬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떨어져 있다는 거리감을 느끼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이 애타게 찾는 모습에 마음을 돌이켜 문을 열었으나 그 때에는 솔로몬이 떠나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이 생겨납니다.
솔로몬이 떠나게 되면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성에서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갔도다'라고 할 정도로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 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라고 자신을 떠난 솔로몬이 행여 예루살렘에 있는 예쁘고 다정다감한 다른 여인들에게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솔로몬을 찾아달라고 합니다.
이 간청을 듣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9절에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라고 합니다.
솔로몬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솔로몬을 과제로 삼을 것이지 왜 다른 것에 관심하면서 공감하지 않는다고 혼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멀어져버렸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은 것이 무

엇인가'라는 말은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술람미 여인의 꿈이나 생각이기에 실제로는 솔로몬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진 상태의 꿈을 통해서 예루살렘 여인들에게서 '솔로몬에게만 집중하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즉 솔로몬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즉 시골처녀에 불과하고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나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때리고 겉옷을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음의 관심을 제3의 대상에게 옮겨놓고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즉 추풍낙엽처럼 세상에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 관계는 매듭지어 졌다고 오해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할 때에 더는 하나님을 과제로 삼지 않습니다. 육체로 접하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사건 사고들이 삶의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과제로 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도 나를 최고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과제를 잊고 제3의 대상들을 과제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하는 대상들을 공감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태가 믿는 자들의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코 매듭지어 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마음을 흐르는 냇물처럼 하늘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과제가 됩니다.
연인 시절에는 서로를 과제 삼았으나, 오히려 결혼하여 서로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제3의 관심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어느 한쪽이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정은 사라져갑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끊고 겨우 유지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의 결말은 무미건조한 삶이거나 이혼입니다.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하고,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하고,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과제로 삼지 못한 자들의 경향입니다. 하나님을 과제로 삼지 못했기에 이혼했고, 하나님을 과제로 삼지 못했기에 재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과제로 삼을 때에만 결혼관계

부부관계도 아름답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과제로 삼을 때에만 멋진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매듭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과제로 삼아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한 순간도 잊지 않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하나 되셔서 나의 마음을 끄는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 죽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길을 따라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어, 아버지 하나님을 과제로 삼는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과제로 삼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의 매듭지어질 수 없는 관계를 십자가 생활화로 지속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모든 과제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과제로 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